

다이로움으로 민생 위기 돌파 군산시, 읍면동 신년대화 시작

익산시, 상품권 구매한도 720만원...충전시 10% 혜택 유지 작년 4585억원 지역 소비...누적 1조원의 경제효과 유발

익산시가 자랑하는 대표 민생 안정 정책 '다이로움(多e로움)'이 올해도 파격적인 혜택을 이어간다.

익산시는 사상 초유의 쿠팡 삭감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이로움 발행 목표를 도내 최대 규모인 4,000억 원으로 설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구매 한도는 연간 720만 원이다.

시는 총전 시 주어지는 10% 추가 혜택을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

다이로움은 익산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다. 2020년 처음 발행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가입자 수는 26만여 명이다. 이는 익산 시 인구의 비슷한 숫자다.

지난해만도 2만 5,600여 명이 신규로 가입하는 등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시민들의 주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누적 발행량은 2조 원을 돌파했다. 발행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실제 사

용한 비율인 결제율 역시 98.5%에 달한다.

지난해 한 해만 4,585억 원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졌다.

특히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조 원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대형마트 소비 자금의 소상공인가맹점 전환 △타지역 소비 유출 방지 △총전 시 10% 혜택을 통한 추가 소비 발생 등을 세부적 경제효과 유발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다이로움은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는 다이로움 도입 6년 차에 접어든 올해 플랫폼(앱)을 전면 개편해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가맹점 신청과 승인 절차가 더 간편해지고,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한다. 선불 충전형 카드를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다이로움 택시와 치킨로드 사업장으로부터 추가 혜택 정책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부터는 다이로움 발행 카드 회사를 4개로 늘려 시민 편의를 증진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 서점과 청년몰, 착한가계업소 등 일부 가맹점을 대상으로 결제 금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하는 정책 지원을 강화했다.

시는 올해 다이로움 뿐 아니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정과 경영·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자금을 125억 원 규모로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경영개선 지원사업과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의 경우 상반기 내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다이로움은 익산시민의 생활 속에 자리를 잡고 민생과 골목 경제 활성화를 책임지고 있다"며 "성공적으로 정착한 다이로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지역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 제안 시정 반영·주요 시책 공감대 형성의 자리 마련

군산시는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7일 수송동을 시작으로 13일간 '주민과 함께하는 읍면동 신년대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7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행하는 이번 신년 대화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시정에 적극반영하고, 나아가 주요 시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제 시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은 지역 및 연령, 분야별로 분류하여 군산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책발굴의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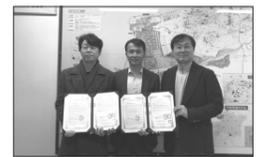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불편 및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의 사전 현장점검 후 답변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며, 건의 사항은 업무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장이 배석하여 설명 후 처리결과를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2025년 신년대화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또한 연중 실시하여 폭넓은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산시의 더욱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장기요양 대책 의료센터 시범사업 실시

군산시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대책 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군산시는 6일 경희365한의원, 대한환경보건원솔한의원 등 2025년 장기요양 대책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산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지자체 공모에 선정됐다.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급여 인정자는 경희365한의원, 대한환경보건원솔한의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면 협약에 따라 군산시 대책의료센터 2개소는 이달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진료(월 1회)와 방문간호(월 2회), 수시상담 및 지역사회 돌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농업용 드론 활용 자격취득 교육생 30명 모집

익산시가 4차 산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드론의 농업분야 활용을 위해 전문가를 양성한다.

시는 오는 10일까지 초경량 비행장치 조정자 자격 취득 교육생 30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은 익산시농업기술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은 드론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며, 교육비의 50%(1인당 최대 110만 원)가 지원된다.

대상은 익산에 거주하며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하거나 신체검사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 농업인이다.

신청은 농촌지원과를 방문하면 되고,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전화(063-859-4956)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작년 고향사랑기부금 6억 돌파

탐마루 쌀·고구마 소주·날씨가 고구마 등 지역 특산물 답례 인기

지난해 모인 익산시 고향사랑기부금이 전년 대비 13% 가장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6억 6,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5억 9,000만원보다 12.6% 늘어났다. 건수로 보면 6,616건으로 전년 4,654건 대비 1,962건 증가했다.

전체 기부 중에는 전액 세액공제 적용 한도인 '10만원' 기부가 9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기간별로 보면 11~12월 모인 기부액이 전체의 70.6%(4억6,900만원)으로 연말 두 달간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직장인 기부가 집중되는 연

말을 맞아 시가 마련한 집중 홍보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탐마루 쌀 △고구마 소주 △날씨가 고구마 △배 △한돈구이세트 △김치 등 익산에서 나는 특산품을 중심으로 하는 기부 답례품을 앞세워 홍보했다.

그 결과 5,300여건의 답례품이 주문되는 등 지역농가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올해부터 1인당 기부 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만큼 답례품을 추가 발굴하고, 시기별 맞춤 홍보 전략을 통해 기부 문화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 개시

노인공익활동 등 4개 분야 사업 운영... 1만1286명 참여

익산시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사업비 474억5,000만원을 투입해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전년 대비 100명이 증가한 1만 1,286명이 사업에 참여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유형별 인원은 △노인공익활동 사업(공익형) 9,279명 △노인역량활용 사업(사회서비스형) 1,533명 △공동체 사업단(시장형) 264명 △취업알선형 210명으로 활동기간은 유형별로 10개월에서 12개월이다.

특히 시는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어르신들의 겨울철 소득공백

을 최소화하고자 지난해보다 20여 일 앞당겨 사업을 시작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시니어클럽 2개소를 비롯해 대한노인회,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등 14개 수행기관에서 진행된다. 주요 사업으로 △아동 안심등교 수호대 △초등학교·어린이집 급식도우미 △독거노인·장애인돌봄 서포터즈 △도시락 배달사업 등을 확장해 취약계층 돌봄 역할을 강화했다.

또한 지역 고령자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경로당 100개소에서 하루 한 끼 식사 관리 사업을 운영한다. 경로당 네일아트, 발건강 관리,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진행해 고령자의 문화 체험 참여를 확대한다.

아울러 탄소저감 정책에 발맞춰 폐플라스틱 재활용, 미세먼지 정화, 폐건전지 수거 등을 추진해 지역사회 환경 개선에 적극 동참한다.

시는 시니어특화장업장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욱 전문적인 일자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전문 강사를 섭외해 △정리수납전문가 2급 △바리스타&브런치 셰프교육 △네일아트 전문교육 △동화구연가(그림책활용) △조경원예전문가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 노인인구가 12월 기준 6만4,8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4.2%에 육박해 갈수록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노인일자리라는 소득보전과 우울감 해소 등 사회적인 효과가 큰 만큼 사업 내실화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국립군산대 이장호 총장,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추모



국립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과 보직교수 및 직원들은 지난 12월 31일 오전 11시 군산시청 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했다.

이 자리에서 이장호 총

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의 마음이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바란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국립군산대학교는 전 교직원에게 근조 리분을 배부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함께 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거동불편 재가노인 지원 박차

장기요양 대책의료센터 시범사업 협약... 의료·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익산시가 거동 불편으로 의료기관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장기요양수급자를 위해 의료·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시는 6일 서동한의원(원장 임태형), 소망한의원(원장 윤영록), 익산시재가 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장선숙)와 '2025년 장기요양 대책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장기요양 대책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방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서동한의원과 소망한의



원 재택의료팀은 이달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수급자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의료와 지역사회 돌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